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정혜은(성신여자대학교 석사)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으로 출현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급증으로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국제결혼으로 정착하게 된 결혼이민자들에 대하여 우리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의 의식이 그들의 주변이나 혹은 가족 등에 결혼이민자의 유무 등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필요 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29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분산분석(one-way ANOVA),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자료는 SPSS PC Program(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Ver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분석한 결과, 학력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을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인 경우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은 소득이 낮은 집단인 경우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둘째, 단일민족 의식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이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가 결혼이민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였으며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단일민족 특성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낮을수록, 결혼이민자 자녀와 응답자의 자녀가 어울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결혼이민자가 이웃에 거주할 경우 도움을 주겠다고 답하였다.

셋째, 결혼이민자를 접한 경험과 결혼이민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지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결혼이민자를 접한 경험이 있고, 결혼이민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응답자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자녀 및 친척이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으며, 결혼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규모, 단일민족자부심, 결혼이민자 가족 유무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단일민족자부심이 낮을수록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가족인 경우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